✻ 코로나 상황, 슬기로운 마음돌봄 공모전 ✻

일러스트·사진
충청대학교 치위생과 / 김은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는데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 바깥 풍경 구경하기" 이다.

방 창문 넘어 어렴풋이 보이는 옅은 분홍색 구름 한 점으로 집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처음으로 좋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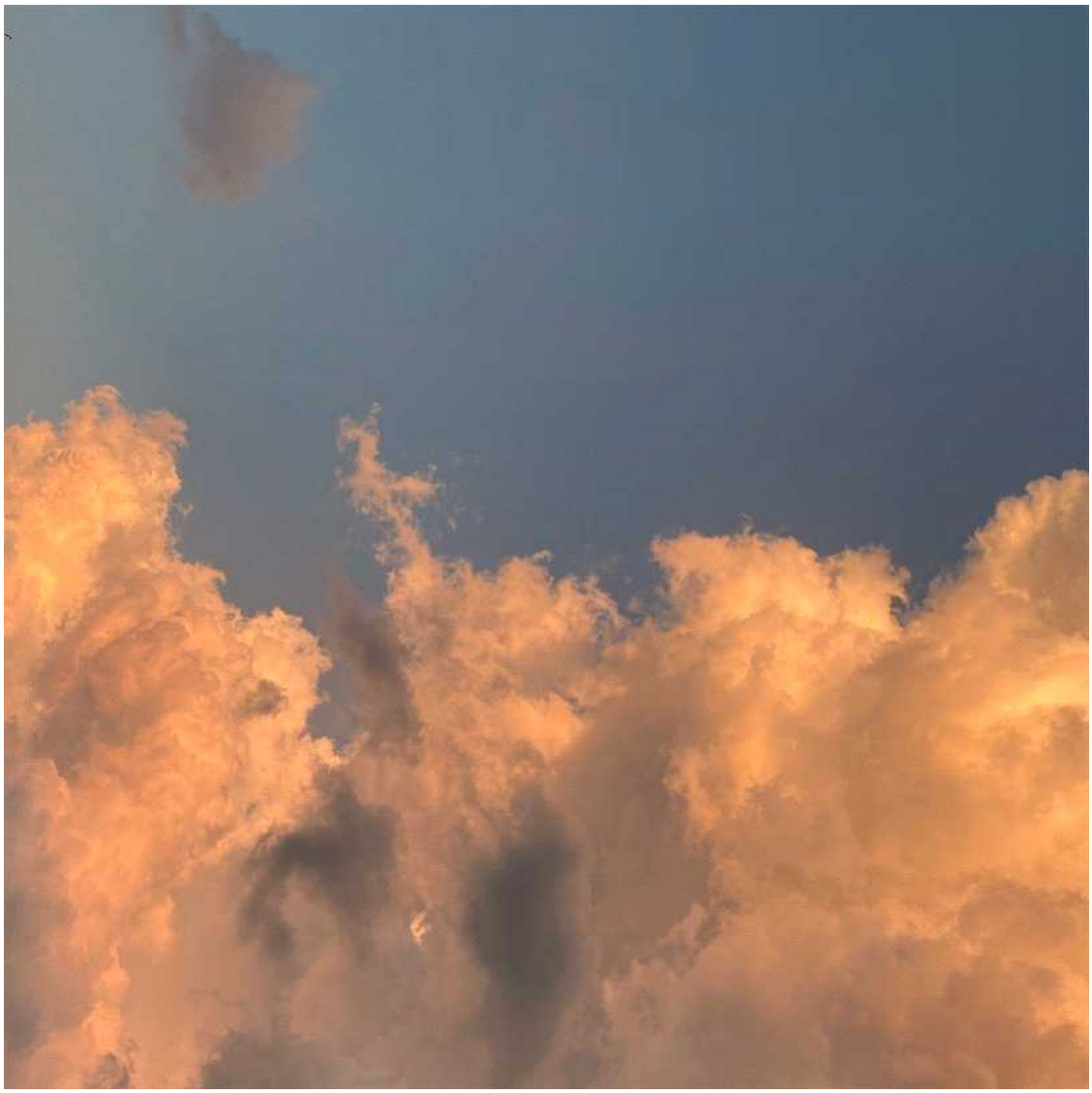
기분 좋은 분홍색 구름을 본 후로부터 매일같이 구름을 구경하게 되었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을 보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뭉게구름, 저녁 시간에 잠깐 왔다 가는 보라색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하늘,
막 흐려질 찰나의 하늘, 넓게 퍼져 있는 구름

이렇게 다양한 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은 물론, 또 나를 칭찬하며 다독여주는 소중한 순간임은 같다.

바쁘게 살아가던 평소와는 반대로, 작은 쉼표라고 생각하며 잠시 멍하니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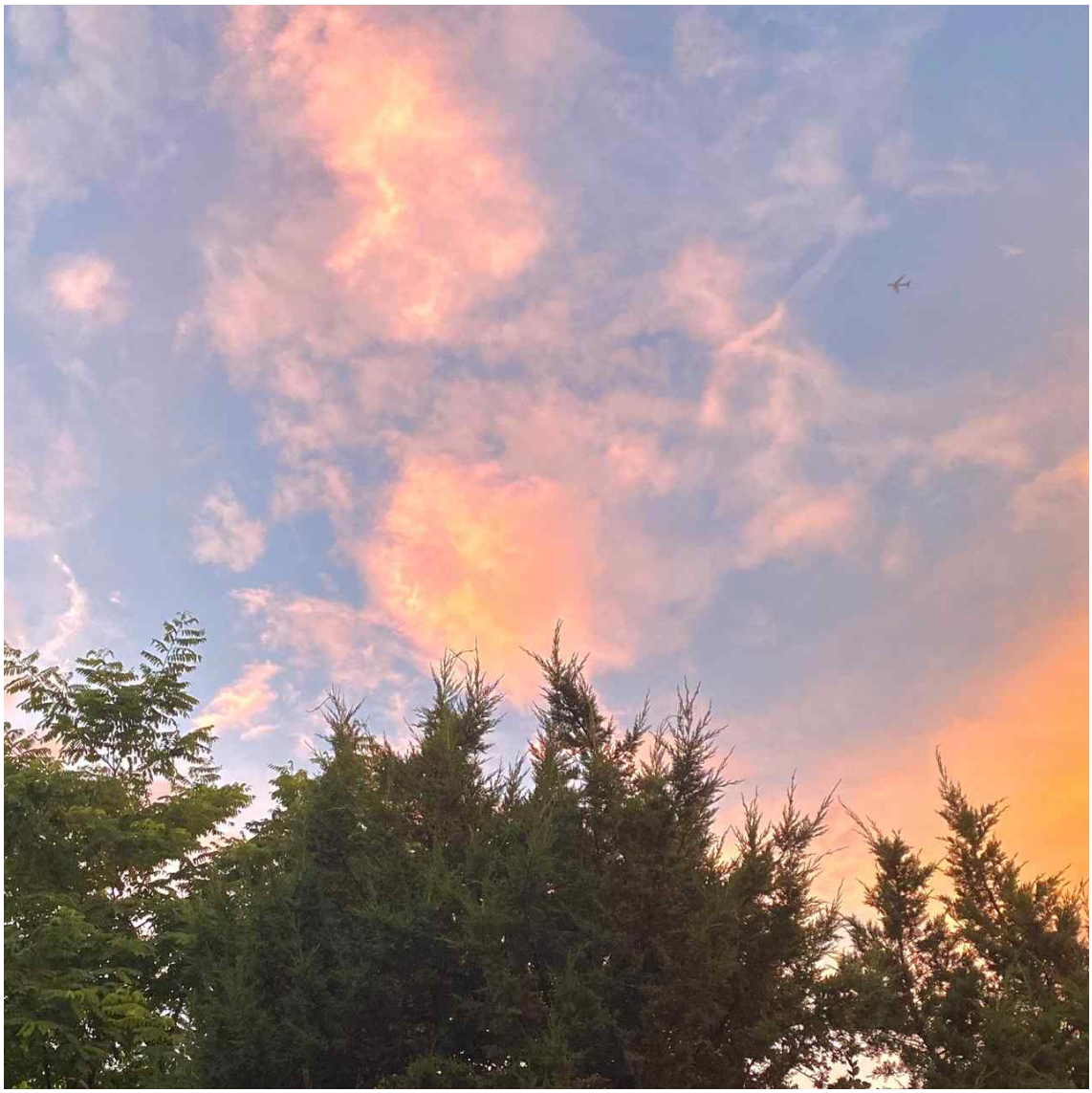
바깥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달랠 수 있게 해 준 첫 번째 구름이다. 만지면 푹신할 것 같은 뭉게구름인데, 약간의 주황빛을 띠는 오묘한 느낌이라서 더 좋다. 이날이 몇 없는 취미생활을 다 하고 몸, 마음 다 지쳐있던 최악의 상태였는데, 창문 넘어 보이는 이 구름이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었다. 구름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비유하자면 엄청 추운 겨울에 전기장판을 적당한 온도로 틀고 새드엔딩일 것만 같았던 영화가 정말 내 스타일로 해피엔딩으로 바뀌는 느낌..?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 내 기분은 나만 아니까 다들 상상해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내가 구름&하늘&풍경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사진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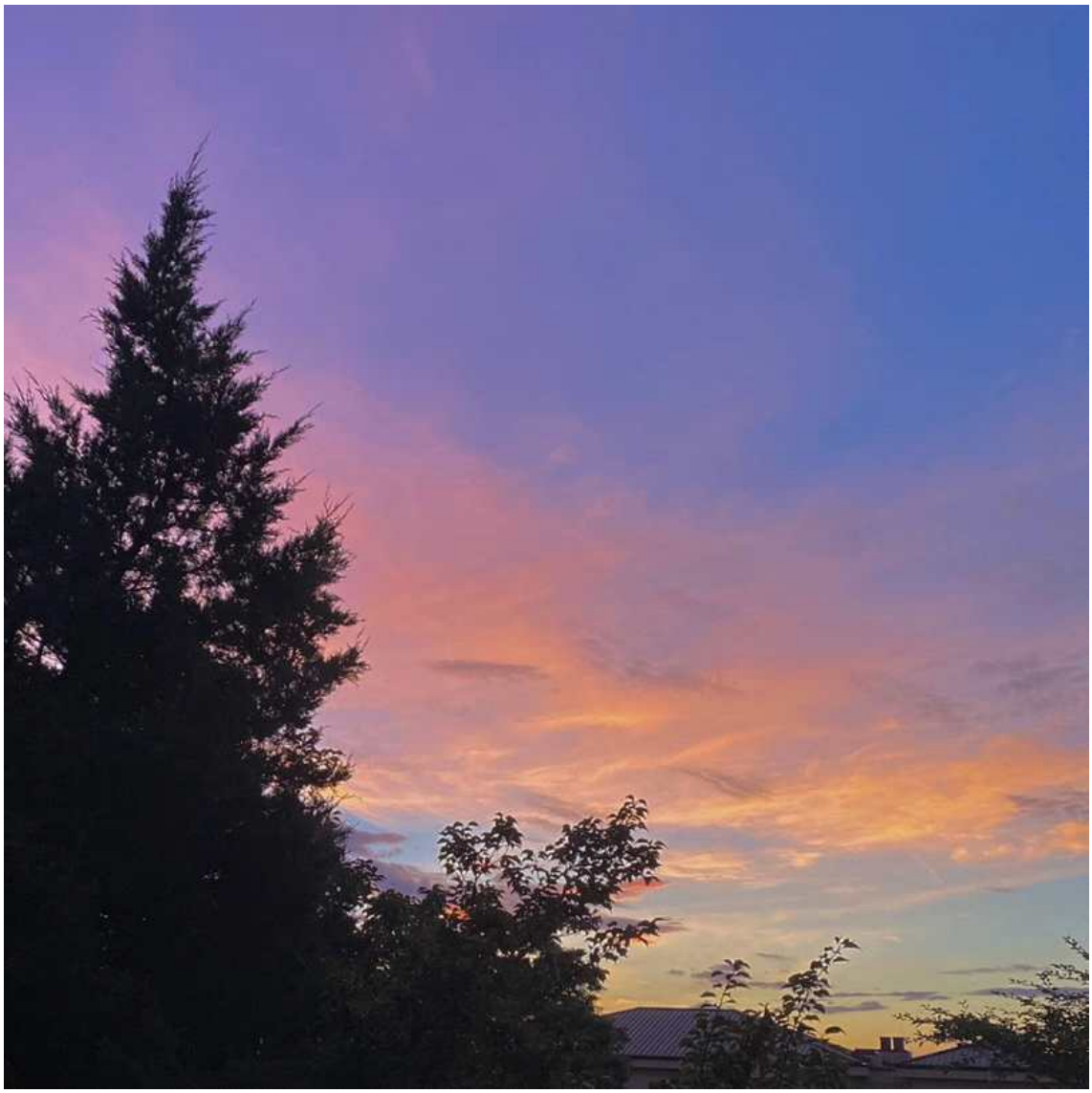
처음으로 우울함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구름이다.
'하늘은 자고로 파랗고 높아야지!'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흐리면 괜히 내 기분까지 우중충해지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는데, 먹구름 사이로 약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동안 먹구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내 기분은 매일 다르니, 같은 하늘이라도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마련이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하루하루가 답답함으로 채워졌는데, 이렇게 햇살이 밝게 내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은 어두우면서 분위기 있는 이런 하늘이 새로우면서 반갑다.

<3>



내가 살면서 봤던 구름 중에 가장 이상하다.
흐린 듯, 밝은 듯... 마치 사회성을 100으로 올려 간신히 약속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내 상태 같다. 코로나로 약속 잡는 거조차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보다 사람 만나는 횟수가 줄게 됐다.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설레고 들뜨지만,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니 기가 빨리고 넋이 나간 상태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힘이 빠져 있는 내 모습과 닮았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은...?

<4>



평소였으면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막 얘기하고 있었을 시간이지만 이날은 하루에 9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가족 모두가 집에 발이 묶였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는데, 문득 창문을 보니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갈 정도의 신비로운 구름이 떠 있었다. 사계절 내내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소나무 배경에 보라색, 주황색, 하늘색이 합쳐지니 이보다 더 예쁠 수 없다. 이 구름을 본 후로 한동안 세상 모든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구름이다.